

전북, '새정치민주연합 독점구도' 깨졌다

기초단체장 14곳 중 7곳 무소속 승리 '이변' 도지사 선거, 새누리 후보 20%대 득표도

전북지역 6·4 지방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후보가 당선되며 체면치레를 했지만 14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절반인 7곳에서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특히 무소속 기초단체장의 대거 당선과 함께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가 역대 새누리당 후보로는 전북의 최고 득표율인 20.45%(17만7172표)를 획득하면서

전북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 구도가 사실상 막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를 크게 앞서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송하진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김완주 전북지사가 그동안 8년간 이끌어온 도정이 송 당선인 체제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사업은 송 당선인이 김 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구조 개편과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감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선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김승환 교육감이 초반부터 승기를 잡으면서 무리 없이 당선됐다. 3선 고지에 도전한 5명의 현직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군산 문동신·김제 이진식 시장이 당선됐고, 무주 홍낙표 군수와 진안 송영선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3선 도전에 실패했다. 전북 14개 시·군 선거구 중 무려 7곳에서 무

소속 후보가 승리하는 이변을 낳았다. 단 한 곳에만 무소속 후보가 승리했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무소속 대역진으로 평가된다. 군산·정읍·김제·남원·순창 등 5곳만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했을 뿐 나머지 9개 시·군은 모두 새로운 수장으로 물갈이됐다. 무소속 후보로는 익산시 박경철, 김제시 이진식, 완주군 박성일, 부안군 김종규, 진안군 이항로, 장수군 최용득, 임실군 심민 후보가 당선에 영예를 안았다. 총 34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이 32석을 휩쓸었고 나머지 2석은 무소속 후보에게 돌아갔다. 173명을 뽑는 지역구 시의원은 새정치연합 119석, 무소속 52석, 정의당이 2석을 차지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북 기초단체장 당선자

〈범례〉
▲이름 ▲나이·정당 ▲직업·경력
▲정당 약칭:민=새정치민주연합, 무=무소속

전주시장 김승수 45·민 정당인	 문동신 76·민 시장	군산시장 문동신 76·민 시장	
익산시장 박경철 58·무 익산시민연합 대표	 김성기 67·민 시장	정읍시장 김성기 67·민 시장	
남원시장 이환주 53·민 시장	 이건식 69·무 시장	김제시장 이건식 69·무 시장	
완주군수 박성일 59·무 초빙교수	 이항로 57·무 농업	진안군수 이항로 57·무 농업	
무주군수 황정수 59·민 정당인	 최용득 67·무 농업	장수군수 최용득 67·무 농업	
임실군수 심민 66·무 사회활동가	 황숙주 66·민 군수	순창군수 황숙주 66·민 군수	
고창군수 박우정 69·민 기업인	 김종규 62·무 교육사업가	부안군수 김종규 62·무 교육사업가	

“전북, 100조원대 탄소산업 중심지로”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자

송하진(62) 전북지사 당선인은 5일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받들어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도지사로 선출된 송 당선인은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교감능력과 전체를 보는 조감능력, 그리고 일을 바르게 추진하는 균형감각으로 새로운 도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무한책임을 느낀다. 오로지 전북발전을 도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전북에 굴뚝 없는 산업, 관광산업이 꽃을 피우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그는 “전북 전역에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할 것이다. 연간 1억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오도록 만들 것이며 문화예술체육을 창의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전북에 오면 어디서든 불편함이 없도록 즐기고, 체험하고 마무리고 가도록 토틸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전북 전역을 자동차와 기계, 비행기, 농기계 등 100조원 대의 탄소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면서 “새만금사업을 가속화하고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인프라를 확충하면 여기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자(왼쪽)와 부인 오경진씨.

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 “도정운영에 관한 한 일단 냉철하게 응시할 계획이지만 정확하고 솔직하게 진단하고 난

후에는 모든 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 “지시형이 아닌 화합형 도지사, 솔선수범하는 도지사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국 교육 미래의 고향 만들겠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자

김승환(60) 전북도교육감 당선인은 5일 “지난 4년에 대한 빛나는 성적표를 받았다”며 앞으로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전북이 ‘대한민국 교육미래의 고향’으로 만들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민, 교육가족,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난 4년에 대한 빛나는 성적표, 앞으로 4년에 대한 뜨거운 격려를 받았고,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선의 경쟁을 한 유호열·신환철·이미영 후보들

정말 수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지난 4년간 얼마나 잘했는가’를 신임받는 선거였다”면서 “시골에서 만난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도 손을 꼭 잡으며 ‘잘하고 있다’, ‘전북 교육이 정말 깨끗해졌다’고 격려할 때 기분이 좋고 보람이 컸다”고 말했다. 교육청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조는 지난 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갈 것이며 아이들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면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을 혁신의 바람이 불어오는 ‘대한민국 교육 미래의 고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왼쪽)와 부인 이인숙씨.

다하겠다”면서 “논어준 작은 학교들로 돌아가는 발견들이 분주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이념에 대해서는 “학력은 ‘참된 배움’의 즐거움으로, 인성은 ‘참된 가르침’으로 더욱

신장시켜겠다”면서 “경쟁을 넘어선 ‘협력’으로 지역 공동체의 중심점이 되고, 권위 대신 ‘인권의 향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추신D 대신프리모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 우리옷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투레쥬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